

SBS 2019년 2049 시청률 1위!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부문은 SBS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SBS는 평일과 주말 합계 프라임타임 기준으로 2049 시청률 2.3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KBS2가 주말 강세에 힘입어 2위(1.95%), MBC가 3위(1.65%)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BS는 평일과 주말 프라임타임 모두에서 2위와 큰 격차를 벌려, 모든 프로그램이 골고루 선전했음을 증명해 보였다.

2019년 주요시간대 2049 시청률 Top 6

순위	평일	주말	전체
1	SBS (1.89%)	SBS (3.19%)	SBS (2.31%)
2	MBC (1.57%)	KBS2 (2.88%)	KBS2 (1.95%)
3	KBS2 (1.50%)	tvN (1.91%)	MBC (1.65%)
4	tvN (1.27%)	MBC (1.82%)	tvN (1.48%)
5	KBS1 (1.21%)	JTBC (1.32%)	JTBC (1.22%)
6	JTBC (1.17%)	KBS1 (0.85%)	KBS (1.10%)

제공: 닐슨코리아(2019.11~12.15)

드라마: 지상파 반격의 시작 SBS

케이블과 종편의 거센 추격에 대한 지상파의 반격이 시작된 곳은 바로 SBS였다. 금토 드라마라는 새 슬롯을 통해 <열혈사제>, <녹두꽃>, <의사 요한>, <배가본드>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으며 단숨에 최고의 드라마 시청존을 만들어냈다. 특히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한 tvN <아스달연대기>(540억), MBC <이몽>(200억), <아이템>(200억), JTBC <나의 나라>(200억) 등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달리 SBS가 내놓은 대작들은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청률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합합왕 나스나길>과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한 프로야구단의 프런트를 소재로 한 <스토브리그> 등 지상파에서 좀체 볼 수 없었던 마니아 층 타깃의 다양한 소재를 발굴, 도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또한 자칫 외면받을 수 있는 '불륜' 소재를 영리하게도 '추리' 코드로 감싸고, 여기에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 웰메이드로 박수 받는 <VIP> 역시 빠질 수 없다.

예능: Oldies but Goodies!

신규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SBS 예능 프로그램은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쥐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2016년 첫 방송 때부터 TOP 지위를 고수해온 <미운 우리 새끼>는 올해도 예능 제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글의 법칙> 등도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 강자'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예능 새내기 발굴에 매진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에 신선함을 장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방송을 시작한 <맛남의 광장> 역시 호평 속에 안착에 성공했다. 타사의 인기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련 그룹들의 활동 전면 중단, 해당 채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상생 추구'라는 콘셉트를 장착한 <맛남의 광장>에 대한 호평은 '가치'를 선호하는 요즘 시청자들에게 예능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SBS는 2019년 예능 TOP 15에 2049 시청률 기준 5개, 가구

시청률 기준 6개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교양: 1~8위까지 싹쓸이

2019년은 교양의 명가다운 SBS 교양의 무한 확장의 시간이었다. 전통적인 강세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생활의 달인>뿐 아니라 <라이프 오브 사만다>로 BBC에 견줄 만한 대자연 다큐도 선보였다. 특히, <라이프 오브 사만다>는 거친 아프리카 초원의 냉혹한 자연 섭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조한 시선이 아니라, 홀로 세 마리 새끼를 지켜야 하는 치타 사만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여 보다 따뜻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감성 다큐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형식에 대한 확장으로 SBS 교양은 2019년 교양 부문 1~8위까지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019년 교양 부문 2049 시청률 TOP 10

순위	평일	주말	전체
1		그것이알고싶다	3.2%
2		궁금한이야기Y	3.0%
3		TV동물농장	2.6%
4	SBS	순간포착	2.5%
5		생활의달인	2.3%
6		본격연예한밤	2.1%
7		맨인블랙박스	2.1%
8		영재발굴단	1.6%
9	MBC	실화탐사대	1.5%
10		스트레이트	1.5%

제공: 닐슨코리아(2019.11~12.15)



한 해를 결산하는 대축제의 향연이 펼쳐진다!



국내 최정상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연말 최대의 페스티벌 <2019 SBS 가요대전>이 12월 25일(수) 고척 스카이돔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진다. 작년에 이어 방송인 전현무가 마이크를 잡고, AOA 설현이 처음으로 <가요대전> MC를 맡아 시청자들과 만난다.

<2019 SBS 가요대전>은 올해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석권한 주요 가수들과 함께 'TOUCH'를 키워드로 역대급 무대를 펼친다. 글로벌 최정상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올 한 해 큰 사랑을 받았던 트와이스, 레드벨벳, GOT7, 마마무, 세븐틴, 뉴이스트, AOA, 몬스타엑스, 에이핑크, 여자친구, 아스트로, 스트레이키즈, 청하, 오마이걸, NCT DREAM, NCT127, ITZY, 엔플라잉, TOMORROW X TOGETHER 등이 출연해 화려롭고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박미연 PD는 "이번 <2019 SBS 가요대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K-POP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가요계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SBS 연예대상>은 올 한 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뉴트로(Newtro)' 콘셉트로 꾸며진다. 장석진 PD는 "순풍산부인과, <X맨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 등 수많은 레전드를 탄생시킨 SBS 예능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MC 라인업 또한 눈길을 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MC이자 쫄깃한 진행을 자랑하는 김성주와 남다른 예능감의 박나래, 아나운서 조정식이 호흡을 맞춘다.

올해 SBS 예능은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쥐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미운 우리 새끼>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 강자'의 입지를 굳혔다. 아울러 <리틀포레스트>, <맛남의 광장> 등의 신규 프로그램 역시 호평을 받으며 안착했다.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오는 28일(토) SBS프리즘타워에서 생방송되는 <2019 SBS 연예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31일(화) 밤 9시부터는 <2019 SBS 연기대상>이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해를 넘기며 생방송으로 펼쳐진다. 올해 SBS는 <열혈사제>를 필두로 <의사 요한>, <해치>, <녹두꽃>, <배가본드>, <VIP> 등이 드라마 왕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2019 SBS 연기대상>의 MC는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장나라가 맡아, 한 해 동안 사랑받은 SBS 드라마와 연기자들을 위한 축제를 펼친다. 신동엽은 2016년 <미운 우리 새끼>로 SBS 연예대상의 대상을 거머쥔 바 있으며, 특히 <SBS 연기대상>은 2017년부터 3년째 MC를 맡고 있다. 장나라는 <황후의 품격>으로 <2018년 SBS 연기대상> 최우수상과 2019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여자 연기자상을 꺾었고, 현재 방송 중인 월화드라마 <VIP>에서 백화점 VIP 전담팀 차장 나정선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다시 한 번 연기대상에 도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익식 PD는 "2020년 SBS를 빛내줄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SBS, 양성평등미디어상 휩쓸어 - 양성평등 의식 확산 기여

보도국 탐사보도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성폭력 범죄 3부작'으로 12월 5일(목) 여성가족부 주최 제21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에서 방송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보도국 이슈취재팀은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로 최우수상을, 스포츠뉴스팀은 '스쿨 미투' 시리즈로 우수상을 받았다. SBS는 작년에도 양성평등미디어상 방송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공헌해 왔다.

대상을 받은 마부작침은 올 한 해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

트', '부부 살인 리포트' 등의 보도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진단하고 현실 개선을 위한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한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보도는 시민들에게 직접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 보게 하는 등 독자와 소통하는 콘텐츠를 시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12월 5일(목)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가 주는 제8회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인터랙티브 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상 -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성폭력 범죄 3부작'



최우수상 - 이슈취재팀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우수상 - 스포츠뉴스팀 '스쿨 미투' 시리즈

< 짹 >, 베트남 지상파에서 < 러브게임 >으로 부활

SBS 공동제작 - 국내 촬영 - 베트남 지상파 황금시간대 방송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 짹 >이 베트남 지상파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방송된다. SBS에서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방송된 < 짹 >은 일반인 남녀들이 애정촌에 입성해서 서로의 짹을 찾아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려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베트남판 < 짹 >은 베트남 지상파 HTV7에서 < 러브게임(The Love Game) >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어 12월 27일(금)부터 저녁 황금시간대에 편성된다. SBS는 공동제작으로 참여해 국내 주요 도시들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 러브게임 >에 대한 관심은 이미 달아올랐다. 모델, 배우,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베트남 청춘 남녀로 이뤄진 출연진은 최근 무대인사 등 기자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러 매체가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콘텐츠biz팀 안철호, 심상구 PD는 “< 러브게임 >은 연애 커플 매칭 방송 포맷을 수출하여 베트남 현지 버전으로 제작되는 예능으로서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베트남 지상파 프로그램 방송은 최초”라며 새로운 한류 예능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부서
탐방



라이프 오브 사만다, 라이프 오브 제작진

- < 라이프 오브 사만다 > 조연출 조상연(교양2CP 소속)

“엄마에게 전화하게 되는 다큐를 만들자!”

석 달간의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오기 전, 파라곤 지하 중국집에서 유린기에 칭따오 한 잔을 마시며 포부 넘치게 외친 말입니다. 주로 유럽에서 만드는 기존의 자연다큐는 서양인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잔인한 약육강식의 화면으로 본 야생의 적자생존. 하지만 한국인이 제작한 자연다큐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은 한국인의 정, 가족애를 테마로 아프리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면 자연

스레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 다큐’를 목표로 < 라이프 오브 사만다 > 제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지는 다큐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이 써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라이프 오브 사만다 >를 제작하는 과정은, 어렵게 한 것 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 라이프 오브 제작진 >이기도 했습니다. 사만다의 새끼 라라가 다리를 다치듯, 제작진들도 많이 아팠습

니다. 아프리카 마사이마라 현지 촬영 중 누군가 조금이라도 열이 오를 때마다 모든 제작진은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라면 촬영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지역만리 타국에서 극심한 고통을 홀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작진들은 현지의 위생 상태 때문인지 돌아가며 열이 올랐고, 매번 걱정에 가득 찬 밤을 보냈습니다.

사만다가 자꾸 사냥에 실패하듯, 저희 제작진도 많은 것에 실패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공개된 장소를 다니던 수컷 치타와는 달리, 사만다 가족은 항상 천적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숨어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 허가를 얻어 유일하게 길이 나지 않은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었던 저희 팀은 그렇게 매일매일 사만다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사만다를 찾아 헤매는 동안 사만다 가족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

다.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조금만 더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다큐이기도 합니다. < 라이프 오브 사만다 >가 제작진의 능력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사내에서 < 라이프 오브 제작진 >을 도와주신 많은 분 덕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아이디어들로 작품에 활기를 넣어주신 콘텐츠프로모션팀, 예고와 재방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편성팀, 사만다를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켜주시는 기자님들까지.

< 라이프 오브 사만다 >가 엄마에게 전화하게 되는 다큐가 되었는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 라이프 오브 제작진 >이 너무나도 행복한 건,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함께 연대해 살아가듯, 우리에게도 작품에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큐를 봐주시는 모든 분과, 그리고 제작에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 분석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탐사보도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공동 취재한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 분석' 보도가 12월 13일(금) 방송기자클럽(BJC)에서 주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동 보도는 국회의 예산심사 회의록 5천여 장을 전수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방송 뉴스와 인터넷 기사, 인터랙티브 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국회 심사 과정과 결과의 문제점을 새롭게 파헤쳤다. 이 보도는 올해 상반기에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1분기 BJC 보도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지난달 22일(금)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주최 제2회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에서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상을 휩쓸었다.



대명소노그룹과 반려동물 복지/힐링 공간 사업 MOU

SBS와 대명소노그룹은 12월 5일(목) 목동 SBS 사옥에서 반려동물 복지 및 힐링 공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반려동물 힐링 공간 사업을 비롯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리조트 사업 1위인 대명소노그룹과 국내 대표 동물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의 만남으로 반려동물 복지 및 힐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농장 사업프로젝트팀 이덕건 PD는 “동물권이 중심이 되는 자연 친화적인 가족힐링 파크로 디자인되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 수도권 지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아나운서 한국어문상 문체부장관상

이병희 아나운서가 방송언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어문기자협회 주최 제31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방송 부문 문체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병희 아나운서는 1998년 입사 이후 <생방송 모닝와이드>, <생방송 투데이> 등 SBS 대표 교양 프로그램과 뉴스를 진행하며 올바른 우리말을 전파하는 데 기여해왔다. 또 올 하반기부터 'S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우리말' 계시물을 제작하여 사원들에게 바른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거북목 예방 노트북 거치대 판매

건강관리실에서 노트북 거치대를 판매하고 있다. 이 노트북 거치대는 사원들이 PC 작업할 때 자세가 좋지 않아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황윤섭 차장대우가 업체와 협의 끝에 개발했다. 노트북 거치대는 파티션에 거는 방식으로 높이를 높여주어 시선을 노트북 화면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변영옥 간호사는 “거북목이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작업 시 틈틈이 목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트북 거치대를 제작한 업체는 상품등록을 마치고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SBS 건강관리실에서는 시중 가보다 싼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된다”

- 보도본부 시민사회팀 김덕현

한창 찬바람이 불어 닥치던 올해 초, 수많은 남자 연예인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라 불린 추악한 행각을 벌인 이들. 그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대중 앞에 민낯을 드러낸 20초 남짓의 그 짧은 순간에 핵심적인 말 몇 마디를 손에 쥔 마이크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 고민하고 혹여나 질문을 까먹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긴장감 뒤로 어느덧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은 여전히 어렵고, 제게 영원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위와 같은 온마이크 상황 외에도 기자의 일상은 수많은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살인 사건 용의자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담당 경찰들과 스무고개 넘듯 문답을 벌이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자에게서 간결한 사실과 쟁점을 구별해내기 위한 문답을 벌이기도 합니다. 좋은 대답, 좋은 ‘싱크’, 좋은 취재로 향하기 위한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갈수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숨은 정보를 먼저,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한창이던 당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면 매번 행방이 묘연해지는 승리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주차장부터 건물 내부 구조를 그려 동선을 예측해보는가 하면, 문제가 된 클럽에서 일한 적 있는 MD들을 수소문해 일일이 연락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마약류인 ‘물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서는 거래 수법을 포착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판매책을 유인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보낸 시간도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길목을 넘어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4월의 강원도에서는 밤새 스무 번 넘게 연속 중계를 탔고, 비바람이 몰아쳐 모두들 대피한 8월의 해운대에서는 비에 흠뻑 젖으며 태



풍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슴기 살균제 청문회장에 가서는 쏟아지는 망언들을 남김없이 리포트에 담으려 쉬지 않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입사 후 지난 1년의 시간은 취재의 기억들로 구석구석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질문과 전략에 대한 고민, 다양한 경험, 함께하는 선배들의 세심한 가르침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간혹 회식 자리에서 마주한 선배들의 입에서 소싯적 취재 에피소드와 단독 보도를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 과정 속 수고로움과 재치 있는 발상, 지치지 않는 열정에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언젠가 제가 지나온 이야기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이 되길 감히 꿈꿔봅니다. 카메라 앞에서 벌벌 떨던 햇병아리 신입사원은 그렇게 기자가 됩니다.